



# 저 자 씨

◆제1620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6년 3월 8일(가해) 사순 제3주일



▶ 후안 데 플란데스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1496~1504년경, 패널에 유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입 당 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 1 독 서

탈출 17,3-7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탈출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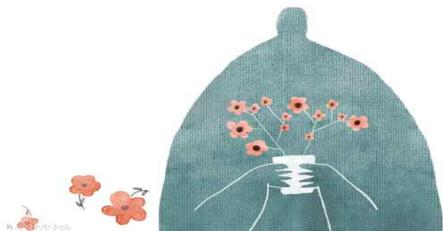
화 답 송



## 비움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만남



김용주 비오 신부  
가산 본당 주임 겸 서부지구 이주사목협력



‘왕국은 곡식으로 가득 찬 자루를 들고 가는 한 여인과 같다. 여인이 먼 길을 걷는 동안 그만 자루에 구멍이 생겼다. 곡식이 줄줄 새어 길에 쏟아졌으나 여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에 도착해 자루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비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소중한 곡식을 잃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통하는 비밀을 손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새어나간다고 느낄 땐, 하늘의 위대한 왕국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열고,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설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무어, 공허에 대하여 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물을 길으러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를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채우고 채우려 애를 쓰면 애를 쓸

수록 목마름이 커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하시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가진 자루에 담긴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우물에 대한 집착,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버팀목처럼 여겨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다시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 그것을 비워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곧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희망만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소중한 자루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희망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루 속을 비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에 매달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대신, 침묵과 더불어 단순하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 ‘안수일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사순 일일 피정 일정표

\* 일시: 3월 18일 수요일

\* 장소: 소성당

시 간	프로그램
10:30~11:40	강의 1
11:4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4:00	강의 2
14:20~15:00	강의 3
15:00~16:00	파견미사

## 겸손과 애덕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지닌 덕목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은 성경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겸손을 통한 신비가 완전히 드러났음을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곧 겸손한 이들을 복되다고 선포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라고 말씀하시며, 겸손의 완전한 모범으로 당신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역시 겸손의 탁월한 모범으로,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8)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신비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외치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와 체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 이시며, 그분과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덕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며, 이는 겸손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오로 사도에

게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2코린 12,9)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믿음의 빛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동시에 꾸준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 수난과 죽음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성인들은 기도를 통해 겸손을 성장시켰으며,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겸손의 궁극적 동기가 사랑임을 체험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태도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참된 겸손은 칭찬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영성 생활의 기초입니다. 겸손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에 열린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통해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대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환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 ■ 소공동체 모임 일정(3월 9일 ~ 3월15일)

날짜	시간	구역/반	주소	이름
3/10(화)	10:30	1구역 4반	The Cascadia Function room	박미옥 세실리아
		5구역 1반	4 Ang mo kio, Central 3,Grandeur8	홍지수 베로니카
3/13(금)	19:00	4구역 2반	Lake shore 7-17	이세연 올리아나